

한국판 감정자각 수준 척도의 개발

이정재* · 김상헌** · 임효덕*[†]

Development of a Korean Version of the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LEAS-K)

Jung Jae Lee, M.D.,* Sang-Heon Kim, M.D.,** Hyo-Deog Rim, M.D.^{†*}

국문초록

연구목적 :

본 연구는 Richard D. Lane이 인지발달이론에 기초하여 감정의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LEAS)를 번역하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한국판 감정자각 수준 척도(LEAS-K)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 법 :

LEAS를 일차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가능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수정한 것을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경북대학교 의예과와 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476명(남자 322명, 여자 15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신뢰도를 알아보았으며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AS-20K), 개방성 척도(Openness to Experience Inventory), 사회 바람직성 척도(Marlowe-Crowne Scale), 외현 불안 척도(Bendig short form of the Taylor Manifest Anxiety Scale), 정서 표현성 척도(Emotional Expressivity Scale)를 같이 시행하였다.

결 과 :

LEAS-K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는 Cronbach's alpha 계수 0.81이었으며 검사자간 신뢰도는 0.99였다. LEAS-K와 TAS-20K는 부적 상관관계($r=-0.10$), 개방성 척도, 사회 바람직성 척도와는 정적 상관관계($r=0.10$)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외현 불안 척도, 정서 표현성 척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 론 :

LEAS-K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고 감정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감정의 강도보다는 감정 경험의 구조(structure)나 복잡성(complexity)을 측정하는 척도임을 시사하였다.

중심 단어 : 한국판 감정자각 수준 척도(LEAS-K) · 감정표현불능증 · 감정자각 수준 · 정서 표현성 · 타당도 · 신뢰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토론토대학교 토론토중합병원 정신과 섭식장애 클리닉

Eating Disorder Clinic,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Health Network, Toronto, Ontario, Canada

[†]Corresponding author

서 론

최근 질병에 대한 전체적 이해의 모델로서 감정조절 장애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¹⁾. 이에 대한 초기 연구로 Nemiah 등²⁾과 Taylor 등³⁾은 개인이 경험한 감정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Lane과 Schwartz⁴⁾는 감정표현불능증 환자는 정서적 각성시 신체 감각과 느낌을 구별하지 못하여 감정을 처리하고 조절할 때 자각(自覺) 과정상의 결손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Taylor 등⁵⁾은 감정표현불능증이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전통적 정신신체질환뿐만 아니라 생리적 변화를 동반하는 정신과적 장애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감정의 조절 및 표현의 장애는 정신치료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정신치료자의 치료 능력은 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환자를 공감하는 능력도 정확한 감정의 자각 능력과 관계가 있다. 정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치료가 진전됨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환자의 증가하며 이러한 감정 표현의 강도나 자각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신치료가 그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지 여부와 정신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⁶⁾.

감정의 경험을 평가하는 지금까지의 측정 방법은 대부분 감정이나 기분을 단어나 구로 서술하여 그 강도나 빈도를 점수화하는 것이었으나, 감정의 조절과 표현은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주관적 심리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개인간의 차이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1970년대부터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이론의 발달과 함께 감정을 경험하는 개인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었는데 Byrne 등⁷⁾은 억압, Linden 등⁸⁾은 자기-기만(self-deception), Bagby 등⁹⁾은 감정표현불능증, Coan¹⁰⁾, Costa와 McCrae¹¹⁾는 경험의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Bagby 등이 감정표현불능증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이하 TAS-20)은 여러 나라에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증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양현 등¹²⁾이 한국어판(Korean Version of the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이하 TAS-20K)으로 개발하여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명하였고 TAS-20의 원저자인 Taylor도 이양현 등의 원통계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였다¹³⁾. Thompson¹⁴⁾은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를 통해 감정의 성숙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감정 성숙의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한 반면, 발달단계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의 경험을 구조화하지는 못했다.

인지발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개인간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Lane과 Schwartz는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cognitive-developmental theory)에 기초하여 감정의 경험 발달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Lane과 Schwartz는 소아가 감각운동기(sensorimotor stage), 전조작기(preoperational stage),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stage),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의 단계를 거치면서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동화(assimilation), 조절(accommodation), 조직화(organization)함으로써 인지발달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경험하는 것도 이런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였다¹⁵⁾. Lane 등은 자신의 단계이론에서 소아가 감정을 자각하는 수준을 5가지, 즉 1) 신체 감각(bodily sensations), 2) 행동 경향(action tendencies), 3) 단일 감정(single emotion), 4) 감정의 혼합(blends of emotion), 5) 혼합된 감정의 조합(combinations of blends)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¹⁶⁾.

첫 번째 수준은 감각운동기 중 반사운동(sensorimotor reflexive) 수준에 해당하고, 감정을 자각하고 표현할 수 없으나 감정에 관계된 불수의적인 반응이 생겨 자율신경계와 신경내분비계의 변화가 일어나 감정을 단지 신체 감각으로 경험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수준은 수의적인 감각운동(sensorimotor enactive) 수준에 해당하고, 감정을 '울고 웃고 벽을 치는 것'과 같이 수의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포괄적이고 미분화된,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만 경험한다. 세 번째 수준은 전조작(preoperational) 수준에 해당하고, 개인의 감정을 자각할 수는 있으나 단면적이고 자각하는 범위가 언어적 표현이 제한적이다. 네 번째 수준은 구체적 조작(concrete operational) 수준에 해당하며 혼합된 감정을 자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감정을 좀더 폭

넓게 경험하고 분화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상반되는 감정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수준은 형식적 조작(formal operational) 수준으로 혼합된 감정이 다시 한번 더 혼합되고 자신의 분화된 감정을 이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¹⁵⁾.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이하 LEAS)은 이런 인지발달이론에 기초한, 감정의 경험 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로서 Lane과 Schwartz에 의해 개발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증명되었고^{15,16)} 프랑스어로도 번역되어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증명되었다¹⁷⁾. LEAS를 이용한 임상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한 예로 사진이나 기억으로 감정을 일으킨 후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하였을 때 우측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의 활동성 증가가 높은 LEAS 점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¹⁸⁾.

최근 LEAS와 TAS-20을 이용하여 정신신체질환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분포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신체형 장애 환자는 기분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식이장애를 가진 환자보다 감정을 자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았으나 TAS-20의 점수는 각 진단군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¹⁹⁾ 직접적으로 감정의 언어적 표현을 채점하는 LEAS가 자기 보고형 척도인 TAS-20보다 감정표현불능증의 평가에 더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²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LEAS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저자는 LEAS를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 체계의 맥락에 맞게 번역하여 한국판 감정자각 수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 이하 LEAS-K)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경북대학교 의예과와 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자 322명, 여자 154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는 476명이었다. 남자의 평균 나이는 22.7세(SD : 2.30), 여자의 평균 나이는 21.9세(SD : 1.61)이었다.

2. 연구방법

1) 연구척도

(1) 한국판 감정자각 수준 척도(LEAS-K)

LEAS는 20개의 장면으로 구성되며 2-4개의 문장이 각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각 장면은 기본적으로 화남, 두려움, 행복함, 슬픔의 네 가지 감정을 일으키도록 고안되었고 마지막 문장은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이다. 검사지의 나머지 여백에 각 장면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느낌을 적는다. 검사 전 피검자에게 상황에 대한 ‘느낌’을 적되, 간단하게 적어도 되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만큼 충분히 길게 적어도 된다고 알려준다.

LEAS의 번역은 LEAS의 원저자인 Richard D. Lane으로부터 한국판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아 먼저 정신과 전문의 2명, 전공의 2명이 일차번역을 하고 그 자료를 한인 영문학자(대학교수) 2명에게 감수를 받았다. 감수 받은 자료를 영어권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우리말과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재미대학원 졸업생(석사학위 소지자)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였고, 이 자료를 원척도와 비교하여 가능한 원척도와 일치하도록 자료를 수정한 다음, 다시 영어에 능통한 국어학자(대학교수)가 보완하여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번역 과정은 원문의 내용에 가장 일치하되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16번 항목의 ‘pizza’는 열량이 높고 기름기 많은 음식이라는 의미에 적합하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삼겹살’로 바꾸었다.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 0은 생각을 서술하는 경우처럼 감정적 반응이 없는 경우이다. 수준 1은 ‘나는 피곤함을 느낀다.’처럼 신체적 반응을 자각하는 수준이다. 수준 2는 ‘좋다, 나쁘다’의 단어처럼 감정의 표현 이외의 상황에 쓰이는 말이지만 전반적인 기분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나, 비교적 미분화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 또는 ‘나는 벽을 치고 싶은 느낌이 든다.’처럼 감정의 표현이 행동 경향으로 나타날 때에 해당한다. 수준 3은 ‘행복, 슬픔, 화남’처럼 전형적이고 잘 분화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한 가지만 표현했을 때에 해당한다. 가장 높은 수준인 수준 4는 좀 더 분화되고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수준 3에 해당하는 단어를 2개 이상 사용

했을 때 해당한다. 각 장면마다 자신의 반응과 타인의 반응에 대해 0에서 4까지의 점수를 매기고 그 항목에 대한 최종 점수는 자신과 타인의 점수 중에서 높은 점수로 한다. 단, 자신과 타인이 모두 수준 4이면서 서로 다른 반응을 하였을 경우는 수준 5로 매긴다. 궁극적으로 LEAS의 점수는 20개 항목의 최종 점수를 모두 합한 총점을 사용한다. 따라서 LEAS의 채점 방식은 구조화된 방식이며, 질문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은 평가하지 않는다.

실제 채점은 LEAS의 채점 기준을 따라 저자가 476개의 검사지를 모두 채점하였으며 검사지에 쓰인 모든 단어가 각각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 지 채점 지침의 기준과 원저자가 만든 영문판 수준별 단어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하였고 동시에 한국판 수준별 단어 목록을 만들었다. 사전은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4판, 2000년)²¹⁾, 동아 프라임 한영사전(3판, 2003년)²²⁾, 동아 새국어사전(4판, 2003년)²³⁾과 금성 출판사의 뉴에이스 영한사전(2판, 2002년)²⁴⁾, 뉴에이스 국어사전(3판, 2003년)²⁵⁾을 참고하였다.

피검자가 사용한 단어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미가 달라져 번역 전후의 단어 수준이 같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속상하다, 멋쩍다, 덤덤하다, 억울하다, 한심하다, 자존심 상하다, 씩씩하다, 무안하다, 뿌듯하다, 신경 쓰이다, 황당하다, 당황하다, 설레다, 짜증나다, 막막하다, 못마땅하다, 반발심 생기기, 견연쩍다, 보람있다, 부답스럽다, 짝뻍하다, 안타깝다, 솔깃하다.’는 적합한 영어 단어를 찾기가 힘들었으며 영어의 ‘puzzled, perplexed, bewildered’는 수준 0, ‘embarrassed’는 수준 3이나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모두 ‘당황하다’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는 문맥상 ‘창피하고 무안하다’라는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되면 수준 3으로, 그렇지 않으면 수준 0으로 채점하였고 ‘초조하다, 안절부절, 좌불안석, 조마조마, 조바심, 조급함’도 심리적인 상태가 우세한지, 행동 측면이 우세한지를 판단하여 수준을 결정하였다. ‘편하다’라는 단어 역시 신체적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심리적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문맥상 의미로 판단을 하였다.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매우 큰 슬픔의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명백히 언급되지 않고 넘

지시 암시되거나 추측되어지는 감정은 점수로 매길 수 없다는 원저자의 채점 지침의 원칙과 영문판 수준별 단어 목록에서 ‘like a knife was in my heart’가 level 2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준 2로 결정하였다.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편견을 가능한 피하기 위해 LEAS의 원저자에게 이와 같은 번역상의 문제에 관해 자문 받고 다시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말과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재미 대학원 졸업생(석사학위 소지자)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영어에 능통한 국어학자(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은 후, 이들과 토론하여 원저자의 채점 지침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2) 한국판 20항목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AS-20K)

1992년에 Bagby 등⁹⁾에 의해 발표된 TAS-20은 감정의 조절 및 표현, 감정 경험에 대한 척도로 감정표현불능증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TAS-20을 번역하여 한국판 개발을 시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TAS-20의 원저자인 Taylor가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인정한 TAS-20K¹²⁾를 사용하였다. 감정표현불능증의 특징 중 하나가 정서적 상태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감정표현불능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감정자가 낮은 것으로 예측하였다.

(3) 개방성 척도(Openness to Experience Inventory)

개방성 척도^{10,11)}는 환상, 미적 정서, 감정, 행동, 사고, 가치의 6가지 영역에서 경험의 개방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4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경험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감정자가 수준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애순²⁶⁾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번역한 척도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alpha 계수는 0.68이었다.

(4) 사회 바람직성 척도(Marlowe-Crowne Scale)

사회 바람직성 척도²⁷⁾는 감정 억압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잘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잘 일어나지 않는 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억압을 많이 할수록 감정자가 수준은 낮은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승²⁸⁾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번

역한 척도의 내적 일치도 alpha 계수는 0.76이며, 2주 간격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0.76이었다.

(5) 외현 불안 척도(Bendig short form of the Taylor Manifest Anxiety Scale)

외현 불안 척도²⁹⁾는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로 2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불안이 높을수록 감정자각 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승²⁸⁾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번역한 척도의 내적 일치도 alpha 계수는 0.84, 2주 간격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0.86이었다.

(6) 정서 표현성 척도(Emotional Expressivity Scale)

Kring 등이 발표한 정서 표현성 척도는 정서 표현 행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및 타인의 정서 감지에 유용한 척도로서³⁰⁾ 자신의 정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6점 척도로 평가하고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자신의 정서를 외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클수록 감정자각 수준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원³¹⁾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번역한 척도의 내적 일치도 alpha 계수는 0.92였다.

2) 신뢰도 및 타당도의 측정

신뢰도 검증은 문항의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하여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였고 검사자간의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조사하기 위해 476개의 검사지 중 40개(남자 21개, 여자 19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두 검사자가 우리말로 번역한 채점 지침과 저자가 만든 한국판 수준별 단어 목록을 참고로 하여 각각 채점을 한 후 Pearson 상관계

수를 구하였다. LEAS의 타당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말로 된 측정도구가 없기 때문에 타당도 검증을 위해 이미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 중 감정자각 수준과 비슷한 개념인 감정표현불능증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TAS-20K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고, 그 외에 감정의 자각수준과 관련이 있는 척도들 중에서 한국어판으로 신뢰도가 검증된 개방성 척도, 사회 바람직성 척도, 외현 불안 척도, 정서 표현성 척도를 같이 검사하여 공존 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조사하였다.

결 과

1. 평균 및 표준 편차

LEAS-K의 전체 평균값은 57.17(n=476)이고 남자와 여자의 평균값은 각각 55.12(n=322)와 61.44(n=154)이었다. 다른 척도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2. 신뢰도

476개의 전체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0.81이었으며 35개를 임의로 골라 측정된 alpha 계수는 0.89였다. 검사자간의 신뢰도는 0.99이었다.

3. 타당도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LEAS-K와 TAS-20K, 개방성 척도, 사회 바람직성 척도, 외현 불안 척도, 정서표현성 척도와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TAS-20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LEAS-K, TAS-20K, OE, MCS, TMAS and EES

Sample	LEAS-K	TAS-20K	OE	MCS	TMAS	EES
Total(n=476)						
Mean	57.17	46.29	26.03	15.92	5.47	51.93
SD	9.59	8.67	6.31	5.18	4.32	6.22
Males(n=322)						
Mean	55.12	46.47	25.62	15.76	5.22	52.20
SD	9.39	8.67	6.12	5.36	4.40	6.48
Females(n=154)						
Mean	61.44	45.92	26.89	16.24	5.97	51.38
SD	8.55	8.69	6.62	4.81	4.12	5.61

SD : Standard deviation, LEAS-K : Korean version of the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 TAS-20K : Korean version of the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OE : Openness to Experience Inventory, MCS : Marlowe-Crowne Scale, TMAS : Bendig short form of the Taylor Manifest Anxiety Scale, EES :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Table 2. Correlation between LEAS-K and other emotional scales

	TAS-20K	OE	MCS	TMAS	EES
LEAS-K	-0.10*	0.10*	0.10*	0.04	-0.02

* : $p < 0.05$, LEAS-K : Korean version of the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 TAS-20K : Korean version of the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OE : Openness to Experience Inventory, MCS : Marlowe-Crowne Scale, TMAS : Bendig short form of the Taylor Manifest Anxiety Scale, EES :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K와의 상관계수는 -0.10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 바람직성 척도, 개방성 척도와도 상관계수 0.10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고찰

본 연구에서 LEAS-K의 내적 일치도가 Cronbach's alpha 계수 0.81 ($n=476$), 0.89 ($n=35$)로 내적 일치도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검사자간 신뢰도가 0.99 로 거의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채점 방법이 미리 만들어진 채점 지침과 저자가 만든 한국판 수준별 단어 목록에 의거하여 채점되었기 때문에 검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배제될 수 있었고, 실제 채점에는 최종 점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점수가 다르게 채점되었다더라도 최종 점수가 같은 경우가 많았던 점도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두 검사자간의 신뢰도를 보기 위해서는 향후 최종 점수 외에 자신과 타인의 점수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타당도에 있어서 TAS-20K와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r=-0.10$), 개방성 척도와는 정적 상관관계($r=0.10$)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TAS-20K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자각 수준이 낮을 것이며 개방성이 높을수록 감정자각 수준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하였다. 사회 바람직성 척도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오리라는 예측과는 달리 정적 상관관계($r=0.10$)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척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Lane 등은 개방성 척도와의 관계에서만 정적 상관관계($r=0.33$)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나 사회 바람직성 척도와 외현 불안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¹⁶). 이런 차이점은 번역을 하면서 그 의미가 변했을 가능성과 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인해 그 의미가 변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는 관련된 추후 연구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TAS-

20과 LEAS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지만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r=0.10$)는 결과는 이전 연구^{16,17,32})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감정을 자각하는 능력의 장애가 감정표현불능증을 특징짓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곧 감정표현불능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LEAS가 감정표현불능증 자체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TAS-20이 자기 보고형 척도로서 감정표현불능증의 임상적 구조를 평가하고 점수의 절단점(cutoff score)을 기준으로 감정표현불능증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라면, LEAS는 검사지에 쓰인 단어를 직접 평가하여 감정을 자각하고 표상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감정의 강도보다는 감정 경험의 구조(structure)나 복잡성(complexity)을 측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32,33}). 다시 말해 두 척도는 내적 감정 상태의 다른 측면을 평가하며 두 척도를 함께 사용하면 자기 보고형 척도와 직접 반응을 평가하는 척도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LEAS-K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른 척도들도 감정의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LEAS-K와는 서로 독립된 척도임을 시사한다.

여자의 LEAS-K 평균값이 남자의 평균값보다 6.32 점 높은 것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던 결과이다³²). 이는 뇌의 역할이 편측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간 감정의 처리과정이 다르고 남자가 여자보다 감정표현불능증의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34,35}). 향후 LEAS-K는 뇌의 편측화와 관련된 연구와 감정의 남녀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영어로 된 원척도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수준이 다르게 채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연구 대상군이 의과대학생으로 다양한 인구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향후 단어의 감정자각 수준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서는 한국인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채점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국어학자나 비교 언어학자 등 여러 전문가와 좀더 논의를 하여 한국판 수준별 단어 목록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판 감정자각 수준 척도(LEAS-K)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의예과와 의학과에 재학 중인 476명의 학생(남자 322명, 여자 154명)을 대상으로 LEAS-K의 내적 일치도를 조사하였으며 이중 40명이 시행한 검사지를 임의로 선택하여 평가자간의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공존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TAS-20K, 개방성 척도, 사회 바람직성 척도, 외현 불안 척도, 정서 표현성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1) LEAS-K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0.81, 검사자간 신뢰도는 0.99로 내적 일치도는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 LEAS-K와 TAS-20K와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사회 바람직성 척도, 개방성 척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외현 불안 척도, 정서 표현성 척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LEAS-K는 감정의 경험을 객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TAS-20K와는 부적 상관관계, 개방성 척도, 사회 바람직성 척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외현 불안 척도, 정서 표현성 척도와는 독립적인 척도임을 시사하나,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Taylor GJ, Bagby RM, Parker JDA(1997) : Disorders of Affect Regulation : Alexithymia in Medical and Psychiatric Ill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8-25
- 2) Nemiah JC, Freyberger H, Sifneos PE(1976) : Alexithymia : a view of the psychosomatic process. In : Modern Trend in Psychosomatic Medicine. Vol 3, Ed by Hill OW, London, Butterworths, pp430-439
- 3) Taylor GJ(1994) : The alexithymia : conceptualization, validation and relationship with basic dimensions of personality. New Trends Exp Clin Psychiatr 10 : 61-74
- 4) Lane RD, Schwartz GE(1987) :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 a cognitive-developmental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psychopathology. Am J Psychiatry 144 : 133-143
- 5) Taylor GJ, Bagby RM, Parker JDA(1997) : Disorders of affect regulation : Alexithymia in medical and psychiatry ill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4-165
- 6) Machado PP, Beutler LE, Greenberg LS(1999) : Emotion recognition in psychotherapy : impact of the therapist level of experience and emotional awareness. J Clin Psychol 55 : 39-57
- 7) Byrne D, Barry J, Nelson D(1963) : Relation of the revised repression-sensitization scale to measures of self-description. Psychol Rep 13 : 323-324
- 8) Linden W, Paulhus DL, Dobson KS(1986) : Effects of response styles on the report of psychological and somatic distress. J Consult Clin Psychol 54 : 309-313
- 9) Bagby RM, Taylor GJ, Ryan D(1986) : Toronto Alexithymia Scale : relationship with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measures. Psychother Psychosom 45 : 207-215
- 10) Coan RW(1972) : Measurable components of openness to experience. J Consult Clin Psychol 39 : 346
- 11) Costa PT, McCrae RR(1978) : Objective personality assessment. In : The clinical psychology of aging. Ed by Storland M, Stilgler IC and Elias ME, New York, Plenum
- 12) 이양현, 임효덕, 이종영(1996) : 한국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척도(TAS-20)의 개발과 타당도. 신경정신의학 35 : 888-899
- 13) Taylor GJ, Bagby RM, Luminet O(2000) : Assessment of alexithymia : Self-report and observer-rated measures, In :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 Theory, Development, Asse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A Wiley Company, pp301-319
- 14) Thompson AR(1985) : An object relational theory of affect maturity : applications to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In : Assessing object relations phenomena. Ed by Kissen M,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pp207-224
- 15) Lane RD, Schwartz GE(1987) : Levels of emotional

- awareness : a cognitive-developmental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psychopathology. *Am J Psychiatry* 144 : 133-143
- 16) Lane RD, Quinlan DM, Schwartz GE, Walker PA, Zeitlin SB(1990) : The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 : a cognitive-developmental measure of emotion. *J Pers Assess* 55 : 124-134
- 17) Bydlowski S, Corcos M, Paterniti S, Guilbaud O, Jeammet P, Consoli SM(2002) : French validation study of the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 *Encephale* 28 : 310-320
- 18) Lane RD, Reiman EM, Axelrod B, Yun LS, Holmes A, Schwartz GE(1998) : Neural correlates of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Evidence of an interaction between emotion and attention in the anterior cingulate cortex. *J Cogn Neurosci* 10 : 525-535
- 19) Subic-Wrana C, Bruder S, Thomas W, Gaus E, Merkle W, Kohle K(2002) : Distribution of Alexithymia as a Personality-Trait in Psychosomatically Ill In-Patients-Measured with TAS 20 and LEAS. *Psychother Psychosom Med Psychol* 52 : 454-460
- 20) Suslow T, Kersting A, Ohrmann P, Arolt V(2001) : A critique of the construct “alexithymia” and its measurement-the weakness of self-report and the opportunities of an objective assessment approach. *Z Psychosom Med Psychother* 47 : 153-166
- 21)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0) :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4판, 서울, (주)두산동아
- 22)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3) : 동아 프라임 한영사전. 3판, 서울, (주)두산동아
- 23)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3) : 동아 새국어사전. 4판, 서울, (주)두산동아
- 24) 운평어문연구소(2002) : 금성 뉴에이스 영한사전. 2판, 서울, (주)금성출판사
- 25) (주)금성출판사 사서부(2003) : 금성 뉴에이스 국어사전. 4판, 서울, (주)금성출판사
- 26) 김애순(1993) :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 연세대학교
- 27) Crowne DP, Marlowe D(1960) :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 Consult Clin Psychol* 24 : 349-354
- 28) 이용승(2000) : 강박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박사학위). 서울대학교
- 29) Bendig A(1956) : The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manifest anxiety scale. *J Consult Clin Psychol* 20 : 384
- 30) Kring AM, Smith DA, Neale JM(1994) : Individual difference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 Pers Soc Psychol* 66 : 934-949
- 31) 한정원(1997) : 정서 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서울대학교
- 32) Lane RD, Sechrest L, Riedel R(1998) : Sociodemographic correlates of alexithymia. *Compr Psychiatry* 39 : 377-385
- 33) Taylor GJ, Bagby RM, Luminet O(2000) : Assessment of alexithymia : Self-report and observer-rated measures, In :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A Wiley Company, pp171-191
- 34) Borod JC, Koff E, Caron HS(1983) : Right hemispheric specialization for the expression and appreciation of emotion : a focus on the face. In : *Cognitive Processing in the Right Hemisphere*. Ed by Perecman E, New York, Academic Press, pp83-119
- 35) Bryden MP, Ley RG(1983) : Right hemisphere involvement in imagery and affect. In : *Cognitive Processing in the Right Hemisphere*. Ed by Perecman E, New York: Academic Press, pp111-123

Development of a Korean Version of the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LEAS-K)

Jung Jae Lee, M.D., Sang-Heon Kim, M.D., Hyo-Deog Rim,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version of the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 (LEAS-K) and to examine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Methods : LEAS-K was developed from translating original LEAS into Korean. The subjects were 476 Korean medical students (322 males and 154 females). The internal consistency was evaluated with the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and 40 protocols were independently scored by two raters to confirm interrater reliability. Additionally, a Korean version of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K), Korean versions of the Openness to Experience Inventory (OE), the Marlowe-Crowne Scale (MCS), the Bendig short form of the Taylor Manifest Anxiety Scale (TMAS) and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EES) were rated to evaluate concurrent validity.

Results : The internal consistency measured by Cronbach's alpha was 0.81 and interrater reliability was high { $r(40)=0.99$ }.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concurrent validity were nonsignificant with TMAS and EES. LEAS-K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AS-20K { $r(476)=-0.10, p<0.05$ }, OE { $r(476)=0.10, p<0.05$ } and MCS { $r(476)=0.10, p<0.05$ }.

Conclusion : LEAS-K was demonstrated to have high reliability and validity.

KEY WORDS : Korean Version of the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 (LEAS-K) · Alexithymia · Emotional awareness · Emotional expressivity · Validity · Reliability.
